

예술로 따지자면 나는 <超自然主義者 surnaturaliste>이다. 예술가가 자연에서 그 모든 유형들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가장 팔목할 만한 유형은 사상 관념의 본유적 상징 체계처럼 즉각적으로 그의 영혼 속에 계시된다고 나는 믿는다.

Henri Heine, *De la France in le National* du 8-VIII-1833, cité in *Œuvres de Sainte-Beuve* I, p. 555.

창녀 에드와르다 부인의 존엄성을 다룬 『마담 에드와르다 *Madme Edwarda*』의 머리글로 쓰였던 초고 상태의 이 글은 삶과 죽음의 완전한 소통 가능성을 예감케 한다. 초현실주의자들과 현상학자들로부터 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한 바타유는 이 가능성을 넘어 좀더 본질적인 완전한 소통을 기대하며 내면적 ‘선’과 ‘악’의 소통으로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철저하게 ‘죄’와 ‘악’을 실현하고 ‘달콤한 희생’의 정상에 이르러 신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학과 악』의 서문에서의 ‘소통으로서의 문학, 솔직함을 요하는 소통, 소통의 근거로서의 엄격한 도덕’에 관한 언급에 이어 그는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ë*』에서는 더욱 명료하게 이 소통의 문제를 진전시키고 있다.

앙드레 브르통은 쓰고 있다. ‘삼라만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순적으로 인식되던 삶과 죽음, 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과거와 미래, 소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더 이상 모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정신의 어떤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라고, 나는 여기에 ‘선’과 ‘악’, 고통과 기쁨을 추가하고자 한다. 강렬한 문학과 신비 체험의 강렬함은 서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다. 오직 이 지점만이 중요한 것이다. (*La littérature et le mal*, p. 186.)

시인은 이 정신의 지점을 넘어 삶과 죽음, ‘선’과 ‘악’, 고통과 기쁨의 소통 불가능성 속에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추구해간다.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시인에게 남겨진 일은 정점에 이르러 희생의 제물이 되는 길뿐이다. “죄는 곧 희생이요, 소통은 곧 죄다. 육신의 죄를 두고, 비너스에게 바친 희생이라고들 한다”라는 말처럼, 희생은 죄이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죄는 특히 고뇌를 심어준다. 죄를 말하는 순간 고뇌는 불가피하다. 종교사회학자 위베르 Hubert와 모스 Mauss처럼 바타유는 옛 사람들의 희생 의식을 고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예수의 희생과 더불어 사람들이 고뇌를 깊어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뇌는 일종의 진실이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 열린다. 희생이니 죄를 범한다고 해서 모두 퇴폐는 아니다. 만일 범죄가 지속한 목적에서 비롯하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동물의 본능처럼 저절로 행해진 것이라면 그 불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빠져드는 ‘악’, 이 불가피한 ‘악’의 매혹 앞에 시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malgré soi, involontairement*’ 끌려들어가 고뇌하게 된다. 이 고뇌는 버림받은 존재의 고뇌이다. 이 완전한 버려짐 속에 가장 열린 소통 수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 자신도 모르고 있던 것이다.